

드라곤킹

판소리와 애니메이션의 만남

융복합 음악극 '드라곤 킹' 공연... 26~27일 아시아문화전당



국악과 연극, 무용뿐 아니라 현대음악, 애니메이션까지 결합된 '융복합 음악극'으로 판소리 '수궁가'를 만난다.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극단 여행자가 함께 제작한 음악극 '드라곤 킹(Dragon King)'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른다. 26일 오후 7시 30분, 27일 오후 3시~7시. 이번 공연은 다른 장·음악극에 비해 '보는 즐거움'에 무게를 뒀다. 90여분 동안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에 디지털 애니메이션, 소리꾼과 배우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섞은 무대를 통해 인간 내면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으로 그려낸다. 용왕의 병을 고칠 용궁 벼슬아치들을 불러 모으는 제1장 '어류도감'부터 용궁 영덕전 수정문에 도착한 토끼가 용궁의 아름다움과 위용에 황홀해 하는 '범피종류', 토끼가 자신의 간을 나무에 달아 놓고 왔다고 말하는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등 총 12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진행된 쇼케이스 공연

이후 관객의 의견을 받아 영상·애니메이션 싱크를 조절하고, 극에 몰입하기 좋은 극장2로 무대를 옮기는 등 변화를 준 공연이다. 원작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재조명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하는 등의 변화도 함께 이뤄졌다. 연출·대본은 지난 2016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총연출을 맡은 양정웅(극단 여행자 대표) 연출가가 맡았으며 음악은 '어어부 프로젝트', '쌍쌍' 등의 멤버이자 영화 '암살', '곡성' 음악감독을 맡았던 작곡가 장영규가 담당했다. 애니메이션은 'TY 스튜디오'에서 제작했으며, 국악방송 프로그램 '채수정의 판소리 유람' 제작 PD 등으로 알려진 안이호 소리꾼, 대한민국 인제상 대통령상·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등을 수상한 박수범 소리꾼과 함께 권송화·이나래·신유진 소리꾼이 출연한다. 심주영 배우가 토끼 역을, 김법진 배우가 자라 역을 맡아 연기하고 권은혜·김명연 배우, 박수연 무용가 등이 출연한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지난해 펼쳐진 창작 음악극 '드라곤 킹' 쇼케이스 모습.

정홍순 '갈대는 바다를 품고 산다' 출간

"갯벌에 바람을 적는다. 질랑한 울음과 웃음이 섞여 있는 지극히 인간으로 돌아와야 할 원칙에 글을 붙여 본다. 하지만 자연의 손리에 따른 평상심에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그늘을 갖지 못해 푸석거리는 먼지일 뿐이다." 순천은 전통의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그가 운데 순천만은 '생태수도'라는 수사를 보증할 만큼 습지, 정원, 하천 등 환경이 뛰어나다. 순천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서정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시집이 출간됐다. 2011년 '시와사람' 시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정홍순 시인이 펴낸 '갈대는 바다를 품고 산다'(문학의 전당)가 그것. 정 시인은 순천 희락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에는 순천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담사르와 짱뿔어', '화보에 가면', '고니에게', '갈대편지', '안개나루' 등 모두 70여 편의 시들은 직접 보고 들은 시적 대상을 서정적인 언어로 그린 작품들이다. "날 수 있는 것을 제 날개보다 더

믿는 것이 새다/ 때로는 날개가 너무 아플 때가 있었으니까// (중략)// 꼬꼬산 바위에 새겨진 십자가/ 학의 날개 같은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듯 울타리 돌아가는 나뭇짐/ 반촌의 밤은 일광 베고 잠들 것이다"(학은 해를 이고 있을까' 중에서) '학은 해를 이고 있을까'는 순천만을 상징하는 '학'을 모티브로 시인이 추구하는 영원의 세계를 펼쳐낸다. '학'으로 대변되는 이들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주원 문학평론가는 "시는 동안 내내 순천만과 동행하던 시인은 급기야 죽음에 이르러서도 순천만의 품에서 순천만과 함께 가겠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절대적 치유 공간의 위상을 부여받은 순천만 일대의 존재감을 확연하게 된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AC on Screen'

8월20일 뮤지컬 '영웅' 중계 선착순 인터넷 예약중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썩은 스크린)'이 뮤지컬 '영웅'을 오는 8월 20일 오후 8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실황 중계한다. 재단은 문화N티켓 홈페이지(www.culture.go.kr/ticket)를 통해 인터넷 예약(선착순 500명)을 받고 있다.



10대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한 공연 영상을 상영하는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 '썩은 스크린'은 이날 녹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시각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09년 초연한 후 올해로 개막 10주년을 맞은 창작 뮤지컬이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조명,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면모와 운명 앞에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 내며, 특히 '영웅'과 '인간'을 오가는 안중

ACC 어린이 공연 27~28일 '애스톤의 친구'·8월 3~4일 '길에서'



여름방학 해외 우수 아동극 만나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 세계 극단의 아동극으로 채워지는 행사 'ACC 여름방학 특집 해외 우수 어린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제27회 아시아테지 국제여름축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스웨덴 '뻘로 극장'의 '애스톤의 친구(사진)'가 어린이극장에서 공연된다. 외로운 돌맹이를 보살피는 강아지 애스톤을 통해 작은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마음·재즈음악이 함께하는 무대로 선보인다.

공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27일 오전 11시~오후 3시, 28일 오후 2시, 4세 이상 입장 가능. 벨기에 '라이카 극장'의 '길에서'도 예술극장 극장2에서 공연된다. 8월 3~4일 오후 2시. 당연하게 여겨온 집의 의미를 넘버벌(Non-verbal)형식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네 사람이 슬랩스틱·춤·연극·표정·음악으로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를 유쾌하게 표현한다. 5세 이상 입장 가능. 전석 1만원.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여고 문인회 '전남여고문학' 5호 발간

전남여고문인회(회장 최은정)가 주관하는 '전남여고문학' 5호(편집장 이미란) 출판기념식이 지난 20일 전남여고 동창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이번 호에는 각지에서 활동하는 27인 회원들의 원고뿐 아니라 2019년 전남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개교기념일 기념 문예동창회장, 노회관 전남대명예교수, 문인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희 시인(44회)의 사죄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재경 김화연(39회) 회원이 4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한 감회를 담아 유치환 시인의 '행복과 송수권 시인의 '스침에 대하여'를 낭송했다. 또한 특별연주로 신

지훈(첼로광주예고2) 박소은(피아노 광주예고2) 학생의 '트로이메라이' 등의 연주가 펼쳐졌다. 또한 1960년대 말 전남여고에서 6년간 교사로 재직하신 노회관 전남대 명예교수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 소고'를 특별 기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Business Opening/Completion Notice)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토산철학원', '학산운명감정원', '태극익스프레스', '양지공인중개사', '무크광주세정점', '고흥나루터', '초대화랑', '그집고기', '으뜸공인중개사', '고전방', '청학철학원', '진주공방', '금강버티컬', '박당화랑', '석당화랑', '신신예술의집', '국수나무용봉점', and '기담철학원'. Each entry includes the business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services offered.